

# 濟州島方言의 曲用에 대하여

姜 根 保

## I

國語의 體言類에 後接하여 文法的 關係를 나타내는 形態素를 格形態라 하여 後置詞까지도 包括하고, 이 格形態의 交替가 曲用이라는 觀點에서 本考를 展開하고자 한다.

勿論 援用되는 理論과 觀點의 差異에서 用語나 格形態의 文法的 處理에 있어서 異論이 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傾向은 格形態의 研究가 主要한 課題로서 關心의 對象이었음을 뜻하는 것으로서, 곧 國語의 膠着語의 特性과 結付되고, 한편 統辭論 研究에서 解決되어야 할 課題가 이에 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하겠다.

그래서 이제까지의 歷史的 研究나 記述的 研究에서 特히 生成文法的 研究等 그 成果는 刮目할 만한 것이다. 여기에 方言의 統辭論·形態論의 研究도 그 必要性이 要求됨은 自然스러운 趨勢라 하겠다.

濟州島方言은 體言類의 曲用에서 形態的으로나 文法的인 關係에 있어서 獨特한 格形態를 取하는데, 이는 他地域語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形態들로서, 國語의 曲用形을 밝히는 데 唯一한 資料임은 勿論이다. 그래서 濟州島方言이 國語形態史의 究明에 있어서 主要한 位置를 차지하고 있음을 力說하는 까닭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本考는 濟州島方言에서 쓰여지는 格形態 가운데서 主格·與格·對格·屬格·處格等을 項目로 定하여 이 格形態들의 用法을 記述하고, 格形態의 意義 및 構造的인 特性이 무엇인가를 찾음은 勿論이며, 分布上에 있어서 方言의 特徵을 밝힘과 아울러 格形態의 形成에 대하여서도 方言의 用例를 充分히 提示함으로써 疑問되는 바를 解決함에 主眼을 두고자 한다.

## II

濟州島方言에서 쓰여지는 格形態를 對象으로 하여 用法·機能 및 排列順位 등을 다음에 考察하기로 한다.

2.1 濟州島方言에서 主格은 {-이(-i)}, {-가(-ka)} 形態로 表示한다. 即 体言類의 아래에 {-i/ka}가 붙어서 主語의 機能을 表示하며, 主格의 省略形이 並存한다. 그리고 開音節의 体言에는 {-ka}가 後接하고, 閉音節의 体言에는 {-i}가 後接한다. 例를 들면,

- ① 돌이 벌써 지어감쨌. (달이 벌써 지고 있다.)
- ② 성(兄)님이 나신드레 마라줍디다. (형님이 날더러 말씀해 주셨습니다.)
- ③ 내 책을 이거사쿠다. (내가 책을 읽어야겠습니다.)
- ④ 개가 밤세낭 주끄다. (개가 밤새 짖다.)
- ⑤ 나 널 학교 가쿠다. (내 내일 학교에 가겠습니다.)

開音節의 体言類에 限해서 後接되는 {-ka} 主格形이 人稱代名詞에 붙여 쓸 경우 위 例에서의 ‘나’는 ‘나, 나가, 내, 내가’ 등 여러 가지의 曲用形式을 가지고 있다. 곧 첫째의 ‘나’는 例에서처럼 {-가}, {-에}, {-로} 등이 連結되지 아니한 이른바 無標임에도 充分히 그 機能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一般적으로 主格形의 省略이라 通稱하고 있는 것이며, 다음 ‘나가’는 {-ka}와 같은 有標로써 主格의 機能을 表示한다. 그리고 ‘내’는 「나+{-i}」의 縮約形으로서 여기서 抽出되는 {-i}도 主格의 表示라 본다. 이러한 主格 {-i/ka}의 實態를, 縮約形에서부터 記述하고 有標와 無標의 統辭關係에 대하여도 特色이 있는가를 살피기로 한다.

2.1.1 縮約에 依하여 語 內部的 母音이 交替되는 것은 人稱代名詞에서만 아니라 다른 体言이나 用言에서도 나타난다. ‘마쉬(마소), 가매(가마: 轎), 웅캐(숫말: 雄馬), 즈캐(암말: 雌馬), 메(모: 苗), 쇠(소: 牛), 등은 名詞의 語幹末音에 {-이}가 後接하여 새 語幹으로 바뀐 것이고, ‘손지(손자: 孫子), 유지(유자: 柚子), 베리(벼루: 硯), 시리(시루: 甑)’ 등은 語幹末音의 變動으로 /i/母音化한 것이다. 이러한 傾向 가운데서 前者는 人稱代名詞 ‘나/너’에 {-i}가 後接하여 形成된 ‘내’와 똑같은 수법이므로 主格表示의 {-i}가 連結된 形態로 分析된다. 그리고 後者の ‘손지(孫子)’의 語形變化와 類似的한 体言의 例로서 ‘베취·베치(배추), 고치(고추: 唐椒), 마리(마루: 廳事) 등을 더 들 수 있고, 用言에서도 ‘베다(뿌리다), 씨베다(씨뿌리다: 播種하다)’ 등이 나타나서 /u/로 부터 /i/音으로 變動됨을 보이고 있으며, ‘부수,

부쇄·부쉬(부시),의 여러 形態에서는 語幹末音이 /i/로 바뀔에 앞서 /ui/音의 段階가 提示되는 셈이다. 이와 같이 볼 때 이들의 音韻的 環境은 體言의 語幹末音에 /i/音이 後行하거나, 用言의 語幹末音이 /i/音이라는 條件이 따르고 있다. 그리하여 先行하는 母音에 縮約되어 버리거나, 또는 母音의 變動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例로서는 本島方言에서

헝기다 (다니다),            맥히다 (막히다)  
 메긴다 (먹인다),        배리다 (버리다)  
 쉐기다 (속이다),        헤씨다 (허물다)  
 되시다 (모시다),      데끼다 (던지다)

등과 같이 들 수 있을 뿐 아니라 全羅道方言에서도,<sup>1)</sup>

쟁이(江이),    배비(밥이),    모앵이(모양이),  
 떼기(떡이),    대대비(對答이), 동작기(動作이)

와 같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慶尙道方言에서는<sup>2)</sup>

가매(가마: 轎),    장개(장가: 妻娶),    조캐(조카: 姪),  
 부재(부자: 富者),    문세(문서: 文書)

例에서처럼 本島方言의 語形과 同一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위에 提示한 ‘조캐, 장개’等 例에서 보아, 主格形 {-i}는 體言末音이 閉音節인 때에 後接하고, 母音下에서는 {-ka}가 이어지는 것이 一貫된 用法임에 不拘하고, 閉音節에도 {-i}가 後接하여 /ε/, /e/ 등으로 實現되어, 閉音節과 用言의 語幹과 語尾에서 나타나는 /ε/, /e/, /φ/ 等과는 區別된다. 곧 後者에서는 {-i}形態가 音節의 境界를 固守하고 있으며, 前者에 있어서는 音節의 境界가 없이 縮約된 것이다.<sup>3)</sup> 即 「體言+{-i}」가 形態論的 構成으로 化石化하여서 單一形態素로 認識되는 ‘웅매(雄馬), 장개(妻娶), 부체(佛), 等 語例와 ‘대대비(對答), 모앵이(모양이), 等의 語例에서처럼 閉音節과 閉音節 아래에서의 {-i}形態 連結은 區別된다. 그리고 分布에 있어서 閉音節에 後接하는 {-i}가 音韻論的인 制約을 받지 아니하고 主語의 機能으로 通用됨에 反하여, 閉音節 아래에 {-i}를 後接한 形態는 前揭한 例와 같이 그 語彙項目이 限定的이며, 縮約된다. 即 이러한 語彙의 一般的인 性向이 어떠한가에 대하여는 內容이나 形態等이 多樣하기 때문에 劃一的인 說明이 어려우나 大體的인 傾向은 提示할 수가 있을 것 같다.

1) 李秉根, “雲峰地域語의 음라우트 現象”, 國語學論文選 6, 1977, pp.267-270.

2) 李丙銑, “主格助詞 研究”, 국어국문학 72·73, 국어국문학회, 1976, p.27.

3) 崔世和, 15世紀國語의 重母音研究, 亞細亞文化社, 1976, p.74.

#### 4 는 문 집

即 体言의 末音이 /a/ /o/ /ə/ /u/ 音으로 實現되는 標準語나 文獻語가 이에 包括되고, 이 体言의 語末音節의 初頭子音은 어떠한 制約이 있는 것은 아니나 /m/s/ɛ/ch/ 音이 많이 나타난다. 그리고 單一音節의 体言을 除外하고서는 先行音節의 末音은 有聲音으로 排列되는 音聲的인 環境에서 「体言+{-i}」는 縮約形으로 굳어진 것이다. 이러한 現象은 前述한 것처럼 慶尙道·全羅道方言等 他方言에서도 많은 語例를 들 수 있으리만큼 널리 깔려져 있어서 特異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本島方言에서는 他方言에 比하여 顯著하게 나타난다. 한편 이 縮約形은 ‘조케가(姪), 조케’와 같이 主格 {-ka}의 後接이 可能하며, 그리고 /i/ 母音을 語末音으로 하는 体言은 格이 省略되거나, 主格 {-ka}가 後接함으로써 標準語에서 ‘나, 내, 내가’等 人稱代名詞에 {-i}, {-ka}가 後接함과 같다.

2.1.2 다음은 ‘나, 내, 내가’等 人稱代名詞의 曲用形이 發話形式에서 實現되는 意味가 어떠한 性向으로 쓰여지나를 例를 들고 살펴보기로 한다.

- ⑥ 나 문제 갑수다. (저 먼저 갑니다.)
- ⑦ 나 집이 가키여. (나는 집에 가겠다.)
- ⑧ 내 문제 갑수다. (내가 먼저 갑니다.)
- ⑨ 나가 집이 가쿠다. (내가 집이 가겠습니다.)

위의 例는 모두 話者와 主語가 同一하고, 構成要素와 配列이 一致하는 發話形式임에도 主格表示의 有無에 依하여 ⑥과 ⑧은 區別되는데, 原語人의 發話에서 普遍的으로 慣用하는 形式은 ⑥, ⑦의 例라 할 수 있고, 例⑧, ⑨는 不自然스럽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例에서는

- ⑩ 가이가 가집니까, 내 강 읍주. (그애가 갈 수 없을 터이니, 저가 다녀오겠습니다.)
- ⑪ 느가 확 강 오라. (네가 빨리 다녀 오너라.)

위 例에서 ‘내, 느가’를 ‘나, 느’로 바꾸게 되면 文脈의 意味에서 差異가 드러나며, 發話形式에서도 어색하므로 主格 {-i}, {-ka}의 後接이 要求되는 것이다. 그런데 위 例들은 모두 「主體—運動」의 構造關係와, 發話의 構成要素로는 「主語+敘述語」로 分類되는 同等한 構成임에도 不拘하고 原語人의 言語意識에서는 이를 區分하고 있으며, 敘述語가 狀態의 表現인 發話에서는 이 區分이 더욱 明瞭해진다.

4) 李承旭, 國語文法体系의 史的研究, 一潮閣, 1973, p. 88.

- ⑫ 나 고우냐?
- ⑬ 내 고우냐?
- ⑭ 느 곱다.
- ⑮ 느가 곱다.

위 例는 同一한 構成要素로 分析되는 發話形式이다. 그러나 主語 ‘나, 내’로 因하여 文脈의 意味는 各各 달리 나타나고 있다. 곧 ⑫의 內容은 ‘긋지 않지’ 또는 ‘고운 사람에 들 수 있겠지’로 理解되는 것이며, ⑬은 ‘다른 사람에게 比較하여 더 곱다’는 內容으로 理解된다. ⑭는 ⑫와 마찬가지로 ‘고운 사람에 속하겠다’는 뜻이 包含되어 있고, ⑮는 亦是 比較의 뜻이 內在하고 있어서 ⑫와 ⑬, ⑭와 ⑮는 各各 對立的인 關係에서 把握되는 것이다. 이를 分明히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위 例에 修飾語를 先行시키면, ‘나 ㅎ셀 고우냐’ ‘내 ㅎ셀 고우냐’, ‘느 ㅎ셀 곱다’, ‘느가 ㅎ셀 곱다’에서처럼 副詞 ‘ㅎ셀’(조금)이 排列되므로써 {-i}나 {-ka}의 有·無에 依한 形態的인 對立과 이로써 惹起되는 文意面에서의 對立關係가 前述한 바와 같이 確然해지는 것이다.

以上에서 主格 {-i}의 縮約된 統辭成分이 遂行하는 機能的 意味가 無標의 成分과는 對立的 關係에 있음을 記述한 것이다.

2.1.3 다음은 主格 {-i/ka}의 一般的인 用例를 들고 그 實態에서 方言的인 特色을 추리기로 한다.

- ⑯ 집이 사름 이시냐 어시냐?(집에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 ⑰ 브름이 부런 배(船)가 못 가키여. (바람이 불어서 배가 떠날 수가 없겠다.)
- ⑱ 눈이 오단 그치난 비가 왓쨌. (눈이 오다 그치니까 비가 내린다.)
- ⑲ 쨌당이 초은에서 왓수다. (시골서 親族이 오셨읍니다.)

위 例에서 格言에 後接한 {-i/ka}는 모두 省略할 수가 있으므로 ‘사름이, 사름’과 같이 兩形이 並用되고 있는 셈이며, 이 가운데서도 原語人에게 즐겨 쓰여지는 發話形式으로는 主格이 省略이다. 그러나 格標識의 有·無에서 어느 發話形式을 取하는 話者의 任意的인 選擇에 依存하는 것으로만 위 例를 記述할 수는 없을 것 같다. 例 ⑲에서 ‘쨌당이’를 ‘쨌당’으로 바꾸었을 경우 文脈的 意味가 同一하다고 생각할 수 없으며, 또한 例의 ‘사름이’ ‘브름이’ ‘눈이’을 省略形으로 바꿀 때에는 強調의 意味를 喪失하게 된다. 卽 例 ⑲를 省略形으로 옮기면 ‘쨌당 초은에서 왓구나!’와 같이 叙法이 바뀌거나, 內容上으로도 ‘恒常 來往하는 親族’을 뜻하고,

‘넨당이’인 경우는 來往하는 여러 사람 가운데서도 唯獨 ‘親族’을 뜻하는 形式이 된다. 特히 다음의 口述에서도 이와 같은 文意의 區別이 認識된다.

「그더 배염덜로 칠성배염이 잘못된 일 시난 귀양 보내연 그더 간 사라젠. 그더 강 살단 낭 불 부저난 문막 산방산(山房山) 앞드레 문 갖젠 말이십디다. 어디서사 귀양 간 디 귀양 갔다네 불 브켜브난 그발라」<sup>5)</sup> 문 휘연 와젠 홉디다.」<sup>5)</sup>

위 傳說의 한 대목에서 主格形의 表示는 ‘칠성배염+이’의 排列에서 찾을 수 있고, 叙述語는 ‘사라젠’ ‘갖젠’으로 分析되므로 構文上의 分布는 「主語+叙述語」의 形式에 어긋나지 않게 排置되었으며, 여기에 「主語省略形—叙述語」가 後續된 것 뿐이다. 이러한 普遍的인 構成形式에서 主格 {-i}가 省略된다 하더라도 ‘살다’ 動詞의 主体가 不分明하거나 文意를 把握하는데 混亂이 惹起되는 일이 없으므로 表層에 나타나는 現象으로는 差異가 없이 認識된다. 그러나 話者가 傳達하려는 內容은 ‘對象 가운데서 또는 一般的인 것에서 唯一한 것, 特別한 對象’을 指稱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体言 ‘칠성배염’에 後接된 主格 {-i}는 여러 種類의 뱀(蛇) 가운데서 特히 吉凶禍福을 左右하는 蛇神을 指稱하여, 이를 드러나게 하는 구실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앞에 들었던 例⑬, ⑭의 ‘브름, 눈’에 後接한 主格 {-i}도 ‘전혀 豫想하지 못했던 風·雪’임을 드러내는 구실로 運用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現象은 이제까지 들었던 少數의 例로써 速斷을 하기에는 어려운 것이나 人稱代名詞의 曲用形式에서 나타나는 有標·無標의 對立이 名詞의 曲用形式에서 示顯되는 對立關係와 符合하는 것으로 보아진다. 따라서 有標·無標는 話者의 自由로운 選擇이 아니라 省略形을 가지게 되는 內在的인 意味로 말미암아 辨別되는 것이다. 이는 「体言+ {-i}」의 構成이 主格의 機能으로만 運用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格形態로도 多樣하게 나타나는 것으로도 보아 標識의 有·無에 依한 對立은 原語人의 意識에 確固한 것이다.

2.1.4 다음은 格形態 {-i}가 여러 發話形式에서 主格 以外的의 어떠한 機能으로 運用되어지는가를 例를 들며 살펴보기로 한다.

#### 〈向格〉

- ⑩ 어드레 감수가? (어디로 가십니까?)
- ⑪ 집이 감수다. (집에 갑니다.)
- ⑫ 밭드레 감수다. (밭에 갑니다.)

5) 拙稿. “濟州島方言의 接尾辭研究”, 논문집 제9집, 제주대학, 1977, p.12.

위 例 ㉑은 現在 거동하고 있는 向方을 묻고 있다. 이에 대하여 例 ㉒, ㉓의 對答에서 ‘집이, 밭디’와 같이 体言에 {-i} {-드레(-türe)}가 後接하여 ‘가다’ 動詞의 向方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türe}는 本島方言에서 向格의 機能을 表示하는 格形態인데, {-i}와 代置가 可能한 것이다. 이로 보아 {-i}는 向方을 意味範疇로 하는 向格의 表示임을 알 수 있다. 向格 {-i}에 先行하는 体言으로서 /p/s/n/D/ 等 末音을 가진 ‘집(家), 밭(田), 목장(牧場), 마당(場), 동산(園), 等 限定된 範圍內의 名詞가 이에 該當한다.

<處格>

- ㉔ 집이 누게 시냐?(집에 누가 있나?)
- ㉕ 결상 우이 아잔 책 이점수다. (결상 위에 앉고 책을 읽고 있습니다.)

例에서의 ‘집, 우(上)’에 後接한 {-i}는 ‘있는 處所’를 드러내는 處格의 機能을 遂行하고 있다. {-i}形態의 處格으로서 特徵은 先行하는 体言에 制約이 있고 省略이 不可能한 것이다. 이 以外の 排列關係 等에 대한 論述은 處格項으로 미루려고 한다.

<屬格>

- ㉖ 집이 돈을 가짐 읍서. (집에 있는 돈을 가지고 오십시오.)
- ㉗ 그게 사람이 짓이우까. (그것이 사람의 行動입니까.)

例의 ‘집이 돈’ 사람이 짓’에서처럼 {-i}形態는 体言間의 統辭成分으로서 屬格의 機能을 表示하고 있다. 標準語의 屬格 {-üi}는 本島方言에서 {-i}로도 나타난다.

이 밖의 機能으로도 ‘느네 집이 좋다.(너희들 집이 좋다): 자네 집이 크다.(저애의 집이 크다.), 等에서 「体言+{-i}」의 構成形式은 文脈上 比較의 뜻으로 實現되고 있으며, 叙述用言으로서는 狀態形容詞가 要求된다.

또한 ‘눈물이 흑이 되어사 알주. (더 苦生을 해야 알 것이다.)’ 等の 例에서 叙述用言 ‘되다’ 따위가 支配하는 格形態 {-i}는 轉爲格의 機能을 表示하는 것으로 {-으로} 格形態로 代置가 可能하다. 그래서 ‘큰 사람, 큰 사람이, 큰 사람으로’와 같은 統辭論의 構成이 同一한 文法的 意味로 實現되고 있다.

한편 다음과 같은 發話는 一般的으로 자주 들을 수 있는 例라 할 수 있겠는 데,

- ㉘ 니 이빨 버랭이 먹엌다. (이(齒)가 虫齒다.)

標準語로는 ‘이(齒)를 벌레가 먹고 있다. 벌레가 이를 먹고 있다’로 語順을 바꾸어 놓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니빨이’의 {-이}는 ‘먹다’ 動作의 客体를 意味範疇로 하는 對格의 機

能으로 運用되고 있음이 分明하다. 그러나 위 例에서 {-i}가 對格 {-ri}로 바뀐 發話의 例는 찾을 수 없다. 主格 {-i/ka}는 格形態 {-은 /은}이 수행하는 機能으로 實現되기도 한다.

- ㉘ 누가 감디야? (자네가 가는가?)
- ㉙ 느도 감디야? (자네도 가는가?)
- ㉚ 는 감디야? (자네는 가는가?)

위 例는 三人稱代名詞 {-느}가, 後接한 {가}, {-도}, {-ㄴ}에 依하여 發話의 內容이 달라지고 있다. 위를 命令形으로 바꾸면 ‘누가 가라.(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자네가 가지.), 는 가라.(다른 사람은 가지 못해도 特別히 자네는 가지.), 느도 가라.(다른 사람도 가는데 같이 가지.)’에서처럼 意味內容에 多少 差異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나 ‘누가, 는’은 限定的 뜻을 共有하고 있으므로 主格形이 主題格의 機能으로도 運用되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以上에서 보아 本島方言에서의 {-i} 格 形態는 主格 機能으로만 運用되는 것이 아니라, 主格·對格·向格·比較格…等의 機能으로도 구사되고 있다. 이러한 用法은 標準語의 主格 {-i}와 마찬가지로 方言의 特色이 있는 것은 아니나 다음과 같은 性向은 抽出할 수가 있다. 即 國語의 格을 8格<sup>6)</sup>乃至 10格<sup>7)</sup>으로 設定한 格의 種類 가운데서 6格乃至 7格이 主格 {-i}와 同一한 形態를 維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主格 以外的 여러 機能으로 구사되는 {-i} 形態는 發話形式에서 省略되는 일이 없으므로 「体言+{-i}」, 「体言+{zero}」의 兩構成은 機能적으로 對立關係에 놓여있는 것으로 記述할 수 있으며, 主格 標識의 有·無에 依한 對立은 當然한 것으로 說明된다.

2.1.5 主格 {-i}, {-ka} 形態는 「体言+{-i/ka}」의 排列形式으로써 主語化的 機能을 表示하고, 複合形式의 形成에서는 다른 格形態에 後接하고 있다.

- ㉛ 성안까장이 기영 뵈디카? (城內까지가 그렇게 가까울까?)
- ㉜ 북는 날부터이 질 심들거여. (來日부터가 제일 힘들 것 같다.)
- ㉝ 가이영이 어떻산디 몰라. (그애하고는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어.)
- ㉞ 해벤드레가 마르랏주. (海邊이 가물었지.)

위 例에서 {-ㄷ장이}, {-부터이}는 {-까장+이}, {-부터+이}로서, {-까지가}, {-부

6) 金敏洙, 國語文法論, 一潮閣, 1971, pp.163-164.

7) 成光洙, “國語主語 및 目的語의 重出現象에 대하여”, 문법연구 제1집, 1974, pp.213-214.



더가)로 흔히 使用되는 複合形式이고, {-영이}는 共同格·接續格으로 役割하는 {-영}에 主格 {-i}가 後接된 것이며, {-드레가}는 向方을 나타내는 格形態 {-드레}에 {-ka}主格形이 後接한 複合形式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前接한 形態는 ‘後置詞’<sup>8)</sup> 또는 補助詞<sup>9)</sup>로 各異하게 分類되는 形態들이고, {-i/ka}는 後接하여 構文機能을 擔當하고 있어서 分布上에서 特徵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例를 들고서 {-i/ka}가 차지하는 자리를 소상히 살펴보고자 한다.

- ㉔ 집이가 어떻 되염신디 모르키여. (집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모르겠다.)
- ㉕ 집이가 아무도 여성 큰일이여. (집에는 아무도 없어서 큰일이야.)
- ㉖ 집이서 놀암찌. (집에서 놀고 있다.)

위 例에서 複合格 {-이서}, {-이가}는 {-이}를 共有하고 있다. 그런데 ‘집이서’의 {-이}는 處格 {-에}이므로 {-이서}는 複合形 {-에서}의 方言形이며, ‘집이가’의 {-이}는 處格 {-에}로 쓰여지는 일이 없으므로, 類似的 用法으로 나타나는 {-i}를 찾아서 解明할 수 밖에 없다.

本島方言에서 實現되는 {이}形態를 차례를 매기면서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 (1) ‘明吉이, 개똥이, 불미쟁이(대장장이)’에서와 같이 閉音節의 人名 아래에 連結된 {이}는 主格形 {-ka}를 後接하여 {이가}로 나타난다.
- (2) ‘높이(高), 깊이(深), 놀이(遊)’처럼 轉成名詞의 曲用에서 ‘높이가, 깊이가, 놀이가’와 같이 {-이가}가 나타난다.
- (3) ‘자이(저애), 가이(그애), 야이(이애)’等 人稱代名詞의 曲用에서 {이가}가 나타난다.
- (4) ‘혈 이(할 이), 갈 이, 말허리(말할 이)’等 形式名詞의 曲用에서 ‘이가’가 分析된다.
- (5) ‘둘이(二), 셋이(三), 다섯이(五)’等 人數를 나타내는 數詞의 曲用에서도 ‘이가’가 後接한다.

以上의 {이가}形態 가운데서 ‘둘이’의 曲用例를 보이면

8) 李承旭, “國語의 Postposition에 對하여 -그의 品類定立에 대한 試攷-”, 一石李熙昇先生頌壽紀念論叢, 一潮閣, 1957, pp. 493-509.

9) 崔鉉培, 우리말본, 正音社, 1937, pp. 862-881.

- ㉞ 둘 간다. : 나 간다.  
 ㉟ 둘이 간다. : 내 간다.  
 ㊱ 둘이가 간다. : 내가 간다.
- ㊲ 둘 하다. (둘이 많다.) : 하나 하다. (하나 많다.)  
 ㊳ 둘이 하다. ( " ) : 하나이 하다. (하나가 많다.)  
 ㊴ 둘이가 하다. ( " ) : 하나가 하다. ( " )

위와 같이 實現되는 {이} 形態의 語彙的 意味로 보아서 (4)의 形式名詞의 曲用에 나타난 ‘말허리’의 {이}와 數詞의 曲用에서 ‘둘이’의 {이}는 同一하다. 따라서 ‘말허리가’ ‘둘이가’의 ‘이가’도 同一한 形態인 것이다. 또한 앞의 例에서 (1)과 (3)의 {이}가 ‘사람’의 뜻을 지니고 있으므로 (2)의 文法化한 {-이}를 除外하고는 (1), (3), (4), (5)가 모두 同音同義의 形態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例의 ㊲에서 ‘둘이’ ‘하나이’의 {이}가 同一한 格形態를 數詞에 後接하고 있는지가 疑心스러운 것이다. ‘하나이’의 用例에서 보면 「하나+{-이}+敘述語(하다/죽다/위이라/없다(無))」等처럼 形容詞가 後行하여 {-i}格形을 支配하고 있으며, 이 경우 「하나+{-i}」를 「하나+{-ka/nūn}」으로 바꾸어도 뜻은 같으므로 {-i}는 機能的인 用法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그리고 例의 「둘+{-이}」도 後行하는 ‘하나이’와 같을 때 格形態 {-이}는 {-nūn}으로 바꾸어 쓸 수 있고, 文意에서 變動도 없다. 그러나 {-이}가 ‘사람’의 뜻으로 쓰여지는 경우, 卽 ‘둘이 아래라, 둘이 위이라’의 文意는 ‘두 사람이 아래라, 두 사람이 위다’와 같이 아주 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둘이’ ‘하나이’에서의 {-이}가 敘述用言으로 形容詞가 後行하는 統辭的 構成에서는 同一한 形態임을 밝혀주고 있다. 이리하여 ‘둘이가’의 ‘이가’로 敘述用言에 따라 「格的 複合形」이나, 語彙的인 {이}에 主格, 比較格의 後接이나로 區別된다. 곧 有·無, 狀態의 形容詞를 述語로 하는 構成에서는 前者에 該當하고, 行動動詞의 動作主로서는 後者に 屬한다. 이와 같이 {이}는 語彙的 性格과 文法化가 兩立하고 있어서 마치 後述하게 될 ‘신디(있는 處所)’와 {-신 디(에게)}가 同一한 形態이면서 달리 쓰임과 같다. 이로써 主格 {-i}形態의 形成의 過程도 部分的이나마 方言의 用例로써 解明되어지는 것이라 생각하며, 이와 함께 分布上의 特色은 主格形이 複合하여 {-이가}를 形成하고, 이 複合形式은 人稱代名詞나 名詞의 縮約形에서 分析되는 {-i+ka}와 同軌의 構成으로 說明될 수 있는데 서 찾고자 한다.

以上에서 主格 {-i/ka}가 遂行하는 機能과 格標識의 有·無에 依한 對立關係 그리고 分布에 있어서 {-i}格形의 形成을 엿볼 수 있는 複合形式 等에 대하여 方言的인 性格을 살펴보았다.

2.1.6 主格形으로 實現되는 格形態로는 {-i}項에서 言及한 {-은/는} 외에 {-에서(-esə)}, {-서(-sə)}, {-이서(-isə)} 등이 있다.

- ㉔ 가네 집이서 보내엿수다. (그애의 집에서 보내었습니다.)
- ㉕ 이번이사 마을에서 도와십주. (이번에야 마을에서 도왔습니다.)
- ㉖ 동네(洞內)서 햅뎌 가민 귀우다. (洞內에서 조금만 가면 거깁니다.)

위 例에서 体言에 後接한 {-esə}는 {-isə} {-sə}로도 나타나는데 이들의 分布는, 後述할 것이나, 制限된 範圍內的 体言에서 {-isə}가 쓰여질 뿐이고, {-sə}와 {-esə}는 任意的이다. 그리고 機能은 處格으로도 表示되어 標準語와의 一致를 보인다. 한편 數詞에 後接하는 例에서도,

- ㉗ 둘이서 곁어감다. (둘이서 곁고 있다.)
- ㉘ 다섯이서 살아가게 햅엿주. (다섯이 함께 살아가도록 하였네.)

와 같이 {-sə}는 主格의 機能을 表示하므로 主格形 {-ka}로 바꾸어도 文意가 같다. 그리고 {-sə}에 先行한 {이}는 前述한 바와 같이 叙述用言의 動作主임을 나타내고 있어서 複合形인 {-에서/이서}의 {-에/이}와는 成分이 辨別的이다. 따라서 主格의 表示인 {-esə}, {-isə}, {-sə}에서 數詞에 限해서는 {-sə}만이 主格으로 쓰여지는 것이다.

2.1.7 主格形으로는 또 {-레(-re)}가 濟州島의 西部地域에서 쓰여진다.

- ㉙ 손지레 서울 간덴 햅여라. (孫子가 서울 간다고 말하더라.)
- ㉚ 아시레 이집이 살암찌. (아우가 이집에 살고 있지.)
- ㉛ 송아지레 석을 그치다. (송아지가 고삐를 풀다.)

例에서처럼 {-re}는 開音節의 名詞에 後接하여 主格의 機能을 表示한다. 本島方言에서 敬語의 形式인 尊待의 表示로 運用되는 格形態는 存在하지 않고, 叙述用言의 活用에서 全的으로 이를 擔當하고 있으므로 {-re}亦是 標準語의 {-께서}의 機能을 함께 지닌 것이다. 그리고 {-re}形態는 向方을 나타내는 向格으로 널리 쓰여지는 것으로서 {-드레}, {-신드레}等 異形態가 있으며, 後述하겠지만 方言에서만 가지는 資料이다.

2.2 濟州島方言의 格 가운데서 與格만큼 여러 形態로 나타나고, 또한 標準語와는 形態를 달

리하여 維持되는 格이 드물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標準語에서는 有生性の 体言類에는 {一계}, 無生性の 体言類에는 {一에}로 表示되며, 그 複合形인 {一에게}가 {一한테}, {一더러}와 함께 亦是 有生性の 体言에 쓰여진다. 그리고 敬語의 形式으로는 {一계}가 쓰이고 있다.<sup>10)</sup>

한편 濟州島方言의 與格形態로는 {一신디(-sinti)}, {一신드레(sintüre)}, {一안티(-anthi)}, {一안트레(-anthüre)}, {一마라(-kora)} 등이 쓰여지고 있어서 與格形의 多樣함을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原語人の 發話에서는 標準語의 與格形이 混用되는 일이 없이 方言形만이 實現되는 데, 이는 主格이나 屬格 등 다른 格에 比하여 方言的인 特色이 顯著的한 格形態임을 뜻하는 것이다.

2.2.1 與格 {-sinti}는 同一한 機能으로 쓰여지는 {-sintüre}와 함께 標準語나 他方言에서 찾을 수 없는 格形態에 屬한다. 文獻語 등에서 이와 類似한 形態를 찾는다면 15世紀 國語의 {一손디}形이 이에 該當될 것이 아닌가 하나<sup>11)</sup> 여기서는 共時態의 記述에 그치게 되므로, 例에 따라 用法을 살펴보기로 한다.

- ① 나신디 마라짜 소용 어시메 자이신디 강 보라. (나에게 이야기를 하여도 소용이 없으니 저애에게 가서 부탁하시오.)
- ② 가네 성(兄)신디 들어보라. (그애 뉘에게 물어보시오.)
- ③ 등장신디 두렌허난 반장신디 강 타렌. (洞長에게 달라고 했더니 班長에게 가서 받으라고 하더라.)
- ④ 느신디 돈이사 핫주. (너에게 돈이야 많이 가지고 있겠지.)

위 例에서 {-sinti}는 標準語의 {一계} {一에게}의 機能과 用法을 가진 格形態로서 先行하는 体言은 '나, 가네, 洞長'과 같이 人稱代名詞와 職名을 나타내는 名詞 및 事物을 表示하는 指示代名詞가 이에 該當하고, 이 밖의 体言類는 先行할 수가 없다. 그리고 叙述用言으로는 賦與의 內容을 지닌 '마라(알리다)', '두렌(달라고)', '타다(받다)' 등과 存在·多少를 內容으로 하는 '싯다(있다)' '하다(많다)', 指向의 뜻을 가진 '강 보라(가 봐라)'가 後行하고, 이들 叙述用言에 {-sinti}는 전적으로 支配되고 있으며, 이밖에 受持·關心 등을 內容으로 하는 叙述用言도 後行한다.

10) 金敏洙, "國語의 格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49-50, 국어국문학회, 1970, pp.25-45.  
崔鉉培, op. cit., pp.845-848.

김영희, "한국어 조사류어의 연구", 문법연구 제1집, 1974, p.273.

11) 拙稿, "濟州島方言의 「있다」活用考", 논문집 제4집, 제주대학, 1972, pp.15-32.

{-sinti}는 複合格을 形成한다. 後接하는 格形態는 {ㄴ/ㄹ/영/서/래/부터/zza장/사/마씀} 등이 있고, 特히 이 가운데서 {-sinti}와 {래}의 複合形인 {-sintire}는 前述한 것처럼 與格形의 機能을 수행하므로 話者에 따라서 自由롭게 選擇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sinti}는 다음의 例에서처럼 똑같은 形態를 찾을 수 있어서 그 機能이 어떻게 轉成되었는가를 斟酌케 한다.

- ⑤ 바깸디 사람 신디 어신디 강 보양 오라. (밖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가서 보고 오너라.)
- ⑥ 그 사람 오래 지다리단 가부려신디 모르키여. (그 사람은 오래 기다리다가 가 버렸는지 모르겠다.)

例 ⑤에 나타난 {-sinti}는 「用言語幹 {시}+語尾 {ㄴ디}」로 分析된다. {시}는 存在를 나타내는 形容詞의 語幹으로서 {싯/이시/잇} 등의 並存形을 가지고 있으며, 歷史的으로는 15世紀 國語의 {이시/시}와 一致하는 것이다. 그리고 {ㄴ디}는 ‘막연한 疑問의 뜻’을 나타내는 語尾로서 ‘간디(갔는지), 온디(왔는지), 놀디(놀았는지)’처럼 用言의 活用形式에서 보이는 一般的인 形態이다.

例 ⑥에서의 {-sinti}는 「過去時相 接尾辭 {시}+語尾 {ㄴ디}」로 分析되는 形態論的 構成으로서, {시}는 ‘먹어신디(먹었는지), 가신디(갔는지), 주어신디(주었는지)’ 등에서 過去를 나타내는 {시}로, 標準語의 {았/엇}에서 {ㅅ}에 該當하는 것이다.

- ⑦ 그 사람 신디 어딘지 아라지키냐? (그 사람 있는 곳(處所)이 어네인지 알 수 있을까?)
- ⑧ 성(兄) 신디 차자 강 보라. (兄님이 계신 곳에 찾아가라.)

例 ⑦, ⑧에서의 {-sinti}는 「用言語幹 {시}+冠形詞形語尾 {ㄴ}+形式名詞 {디}」의 成分으로 分析되는 統辭論的 構成인 것이다. 곧 {시}는 形容詞 ‘싯다’의 語幹임은 前述한 바와 같고, {디}는 ‘간 디(간 곳)’ ‘온 디(온 곳)’ ‘놀 디(놀 곳)’의 例와 같이 處所를 뜻하는 形式名詞로서 標準語의 {데}와 一致하는 것이다.

- ⑨ 일허당 놔두엿 어디 감시니. (일을 하다 그만 두고 어데를 가니.)
- ⑩ 마리레 올라오십주게. (마루로 올라 오십시오.)

例 ⑨에서 ‘감시니’<sup>12)</sup>는 「動詞語幹 {가} + 繼續進行接尾詞 {-으시} + 疑問形語尾 {-니}」의 構成으로 分析되며,

例 ⑩에서 ‘올라오십주’에 나타난 {-시-}는 敬語法의 尊待接尾詞로 쓰인 것이다. 이와 같이 여러갈래로 나뉘는 {시}의 用法을 整理하면,

{시}	— (시·이시·잇)	: 語幹
	— (가시나)	: 過去時相接尾詞
	— (신 디)	: ‘있다’의 冠形詞形
	— (신디)	: 與格
	— (오시다)	: 尊待接尾詞
	— (시니)	: 繼續進行接尾詞

와 같이 要約되는데 이 가운데서 敬語法의 用例를 除外하고는 形容詞 ‘있다’에서 轉成된 形態들로서 同音異義의 形態가 아님이 說明되는 것이다. 特히 與格의 {-sinti}는 「冠形詞形+形式名詞」의 構成인 ‘신디’와 우선 形態上으로 同一하며, 文脈的 意味에서도 相應함을 알 수 있다.

⑪ 아덜이 어멍 신 디 감다. (아들이 엄마 계신 곳으로 간다.)

⑫ 나신디 돈 하영 엇다. (나에게는 돈이 많이 없다.), (내가 있는 곳에 돈이 많이 없다.)

위 例⑪에서 ‘신 디’는 語彙的 意味인 ‘있는 곳(處所)’으로 實現되었고, 例 ⑫에서의 {-신 디}는 與格形 {-에게}의 機能을 表示하고 있어서 두 例는 構文上 機能은 달리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例 ⑫의 述語 ‘엇다(없다)’에 依하여 ‘신 디’가 ‘있는 곳’이라는 語彙的인 意味로 쓰여지거나, 與格 {-에게}로 쓰여지더라도 非文法的인 發話形式이 아니므로 聽者의 理解에 差錯이 없는 것이다. 다만 後者에서 더 自然스러울 따름이다. 그래서 例 ⑪과 ⑫의 ‘신디’와 {-신디}를 달리 說明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用法은 {-sinti}의 構文上 機能이 變動됨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고, 이러한 變動은 敘述用言의 要求에서 加一層 促求되어서 {-sinti}는 드디어 語彙範疇로부터 機能範疇의 形式으로 轉移되었으리라 볼 수 있다. {-sinti}의 與格化에 대한 이와 같은 分析은 앞에서 提示한 {-시}의 接尾詞化와 後述될 {-türe}의 形成에서 더욱 明瞭해질 것이다.

12) 玄平孝, 濟州島方言의 定動詞研究, 1974, p.37 參照.

2.2.2 與格의 機能을 表示하는 {-türe)는 {-tere), {-tire)와 並用하며, 이들은 自由롭게 交替한다.

- ⑬ 날드레 오렌 햅여라. (나더러 오라고 하더라.)  
 ⑭ 성(兄)드레 대여들다. (兄에게 반항하다.)  
 ⑮ 반장(班長)드레 이사(移徙)감수맹 마르라. (班長에게 移徙합니다고 전하여라.)

위 例에서와 같이 {-türe)에 先行하는 体言은 人稱代名詞·人名·職名·人倫關係의 名詞과 指示代名詞에 限定되어 있으며, 後行하는 叙述用言과 複合格을 形成하는 手법은 前項에서의 {-sinti)와 同一한 것이다.

다음에 {-türe)의 形成을 살펴보면 우선 標準語의 {-tərə)가 {-tere), {-tire) 또는 {-türe)等 母音交替로 方言化한 形態라 記述할 수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tū)를 處所 表示의 形式名詞로 記述하는 觀點이 있을 수 있다. 前者에서 {-türe)를 {-tərə)의 方言形이라고 할 경우에는 {-sinti), {-sintüre)의 {-ti)를 說明할 수가 없을 것이고, 나아가서 後述할 {-anthere), {-anthüre)의 {-thi) {-thū)를 說明하기가 어렵게 된다. 이들 與格形에서 共有되는 部分인 {-thi/thū/tū/ti)는 同一한 成分으로서 똑같은 機能을 負擔하는 것으로 把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觀點에서 {-tū)를 說明할 때 {-türe), {-sintüre)와 形態上으로 類似한 것은 本島 方言에서 쓰여지는 指示代名詞 ‘어드레, 어더레, 아무드레, 아무더레’를 찾음으로써 亦是 {-türe)形態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 指示代名詞의 不定稱에서 抽出된 {-türe)의 第一音節 {-tū)는 {-ti), {-te)로도 實現되며, 指示代名詞의 ‘이더, 그더, 저더(여기, 거기, 저기)’의 {ti)와 同一한 形態로서 ‘場所’의 뜻을 가진다. 이로써 {-sinti), {-sintüre), {əti), {etüre)의 {-ti), {-tū)는 確認되는 것이며, {-türe)의 {-tū)로써 標準語의 {-더러)가 解明될 수 있으리라 믿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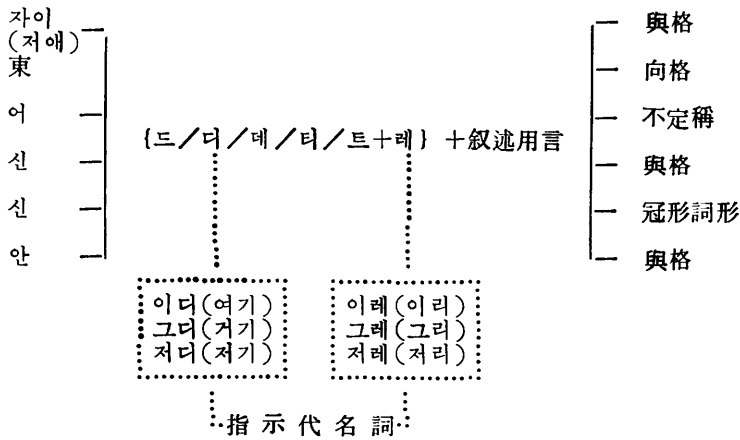
한편 {-türe)에서 第二音節인 {-re)는 指示代名詞의 ‘이레, 그레, 저레(이리, 그리, 저리)’의 {-레)에 該當되는 것으로 ‘方向’의 뜻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이레’의 意味構造는 「이, 그, 저(距離:近·中·遠)+레(方向)」로 되고, ‘이더’는 마찬가지로 「이, 그, 저(距離:近·中·遠)+디(場所)」의 構造로 確然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türe)는 {-tū)+{-re)로 分析될 것이며, 그 意味는 「場所 {드)+方向 {레}」의 構造임이 自明해지는 것이다. 이는 隣近語와의 比較에서도 形態나 뜻에서 同一함을 充分히 밝힐 수 있는 資料에 屬한다.<sup>13)</sup> 이와 같은

13) 李基文, 國語史概說, 民衆書館, 1960, pp.36-41.

拙稿, “濟州島方言의 接尾辭研究”, 논문집 제9집, 제주대학, 1977, pp.11-33.

뜻을 內包한 {-türe}는 人稱代名詞에 後行하는 位置에서 叙述用言의 支配에 依하여 與格의 機能을 擔當하는 것이고, '사람' 以外的 名詞를 先行語로 하는 統辭構成에서는 向格으로 運用되므로써 文法化가 遂行된 것이다.

以上에서 叙述한 바를 整理하면,



위에서 '어디, 어디레, 어드레'와 {-sindi}, {-sindire}, {-sindüre}가 同一한 手법으로 形成되었으며, 指示代名詞 '이디' '이레'에서 '디, 레'를 共通要素로 하므로써 與格形 {-türe}의 形成을 밝히고 있다.

**2.2.3 與格形**에는 {-anthi}, {-anthüre}가 있다. 이들 두 形態의 用法上 差異는 後行하는 叙述用言에 依하여 나타난다. 다음에 例를 들면,

- ⑯ 느안티 막 옥허여냐? (너더러 옥하던가?)
- ⑰ 자이안티레 주젠 아저왔수다. (저애에게 주려고 가지고 왔읍니다.)
- ⑱ 어룬안티 글 배우다. (어룬에게 글을 배우다.)
- ⑲ 가이안티레 글 가르치다. (그애에게 글을 가르치다.)

위 例 ⑯에서는 {-anthi}를 {-anthüre} 또는 다른 與格形으로 바꾸어도 文意는 變하지가 된다. 그러나 例 ⑱의 {-anthi}를 {-anthüre}로 바꿀 수가 없다. 곧 '어룬안티 배우다'는 自然스러운 發話形式이지만 어 '룬안티레 배우다'는 非文法的인 形式이다. 이것은 {-anthi}에 限하는 것이 아니라 前述한 {-sinti}와 {-sintüre}에서도 叙述用言에 따라서는 分布를 달라



하고 있는 것이다. 卽 叙述用言으로 ‘배우다(배우다), 몰리다, (밀리다, 달리다), 욱든다(욕먹다)’ 等 被動詞類가 後行할 때에는 {-anthi}가 要求되므로써 体言이 受持의 對象임을 드러내게 하며, ‘먹이다(먹이다)’ ‘갯다(말하다), 마르치다(가르치다), 주다(給)’ 等 使動·能動詞類의 後行에는 {-anthi}, {-anthüre}가 並用되므로, 自由롭게 한 形態가 選擇되어서 意味上으로 賦與나 關心의 對象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先行하는 体言은 {-anthi}, {-anthüre}가 모두 ‘사람’에 限定하고, 格의 複合形式으로는 다른 格에 優先하여 排列된다.

2.2.4 與格形으로 쓰여지는 形態에는 {-kara}가 있다.

- ㉑ 가이가 날 마라 마라라. (그애가 나에게 말하더라.)
- ㉒ 학생(學生) 마라 이려나렐 허라. (학생더러 일어나라고 말시오.)
- ㉓ 아버지 마라 마랏수다. (아버지께 여쭙었습니다.)

例에서의 {-kpra}는 다른 與格形에 比하여 制約된 用法으로서 運用되는 것이 特色이라 할 것이다. 우선 先行하는 体言이 ‘사람’에 限定된다는 與格의 共通的인 制約과 함께 叙述用言에서도 極端的인 制約이 加해지고 있다. 卽 ‘갯다(말하다)’ 動詞만이 {-kpra}를 支配할 수 있는 것이다. ‘……안티 갯다, ……신디 갯다, ……신드레 갯다. ……안트레(티레) 갯다’와 같은 發話形式이 可能하나 實際 發話의 場面에서 ‘갯다’ 動詞가 後行하는 限 {-kpra}로 바뀐다. 그리고 {-kpra}의 排列은 {-ㄹ/영/사} 等の 格形態와 結合하고, 位置는 {-마랄/마라영/마라사}와 같이 다른 格에 先行한다. 敬語의 形式으로는 ‘할망 마라(할머니께)’ ‘자이 마라(저애에게)’와 같이 等分이 없이 劃一的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이는 {-kpra} 形態에서만 아니라 本島方言의 格形態에 나타나는 一般의 傾向에 屬한다.

2.3.1 對格은 {-을/를}로 表示되며 短縮形 {-ㄹ}이 {-를}에 代置한다. 한편 對格形은 省略되는 수가 많으며, 本島方言에서는 더욱 이 現象이 두드러지고, 格가운데서도 顯著하다.

- ① 밭(田)을 갈다. (밭을 갈다.)
- ② 자일 데령 가라. (저애를 데리고 가라.)
- ③ 말(馬)을 산에서 지루다. (말을 산에서 기르다.)

先行하는 体言의 語末이 開音節인 경우에 後行하는 對格은 {-를}임은 勿論이나, 發話에서

나타나는 對格은 {—를} 보다는 {—리}이 優勢하며, 省略形은 語末音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두루 實現된다.

- ④ 난 밥 먹엄수다. (나는 밥을 먹고 있습니다.)
- ⑤ 곡석 꾀란 옷 사십주. (穀食을 팔아서 옷(衣)을 샀습니다.)
- ⑥ 집에서 글 이그라. (집에서 글을 읽어라.)

한편 複合格인 경우 後行하는 {—리} 또는 {—를/을} 이 省略되므로써 前接하는 格形態가 對格의 機能을 表示하는 듯이 理解되는 形式이 있다.

- ⑦ 떡이영 밥이영 배부르게 먹었수다. (떡과 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 ⑧ 느만 보내여도 되카?(너만 보내어 될까?)

例에서 共同格 {—이영} 및 限定的 뜻을 가진 {—만}에 後接해야 할 {—리}이 省略된 것이며 이러한 例는 加意性的 格形이 先行한 形式에서 ‘밥부터~밥부털, 이것까지~이것까질, 어른조차~어른조찰’과 같이 흔히 들을 수 있고, 이 경우 先行되는 格形이 對格의 機能을 表示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對格 {—를/을}을 {—리}과 混用하는 수가 있는데, 이는 {—리} 格形이 強調의 뜻을 나타내므로써 對格의 機能을 擔當하는 것이다.

- ⑨ 마췌(牛馬) 돌아방 자라. (마소를 돌아본 뒤에 자도록 하라.)
- ⑩ 밥은 먹어사 재기 일어나질겨여. (밥을 먹어야 빨리 일어날 수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對格 {—를/을}은 ‘혹꼴 감저.’(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어딜 멩점시니?’(어디를 다니는가?), ‘집을 나간.’(집을 떠나다.)에서와 같이 敘述語에 따라 向格·處格은 勿論 奪格等으로 實現되어 標準語에서의 對格의 用法과 一致를 보인다. 따라서 對格은 用法과 機能에서 方言的 特徵이 전혀 없는 格形態에 속하며, 다만 省略形이 더욱 顯著함을 들 수 있을 정도라 하겠다.

2.4.1 濟州島方言에서 屬格의 機能은 {—의(-üi)}, {—네(-ne)}, {—이(-i)}, {—人(-s)}의 諸形態로 表示되고 있다. 특히 이들 形態 가운데 {-ne}는 周知하는 바와 같이 標準語에서는 体

言에 後接하여 複數를 나타내는 用法이 一般的인 것이나, 屬格의 機能으로는 他方言에서 類例를 찾을 수 없는 特徵的인 形態인 것이다. 이와 같은 두 機能으로 使用되는 {-ne}가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같은 屬格인 {-üi}와 對比하며 살펴보기로 한다.

- ① 느네 집이 강보라. (너의 집에 가봐라.)
- ② 쨌 당네 말(斗) 빌려 주겐? (親族의 말을 빌려주시겠오.?)
- ③ 동장(洞長)네 밭디가 질 조아서. (洞長이 耕作하는 밭에 농사가 제일 잘 되었지.)

{-ne}에 先行하는 体言은 人稱代名詞에서 ‘느(너), 야이(이애), 가이(그애), 자이(저애), 누게네(누구의), 성네(兄)’ 등 二·三人稱, 不定稱 및 共通格稱의 人稱代名詞와 人名·職名이 包含되며, 이들을 先行語로 하는 所有關係의 機能表示에는 {-ne}의 省略이 없다. 그리고 {-ne}가 体言間의 統辭關係에서 가지는 機能的 意味는 所有者(또는 保有者)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屬格이 가지는 意味가 ① 主·客體的인 것, ② 同格的인 것, 數量·目標 등으로 나뉘어지는데 {-ne}는 이 가운데서 一部를 擔當하고 있는 셈이므로 이와 같은 制約은 先行語에 制約이 있음과 同一하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屬格의 {-ne}는 두 가지의 性向을 特徵으로 하는 格形態임이 밝혀진다. 卽 先行하는 体言이 人稱代名詞等 ‘사람’에 關한 体言에 限定되는 것이며, 体言의 後行으로써 同一한 体言間의 統辭關係가 形成되면서도 ‘保有’만을 意味內容으로 하는 制限的 用法으로 쓰이는 것이다. 한편 {-ne}는 複數接尾辭로서의 發話形式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性向을 볼 수가 있다. 곧 標準語에서 複數의 表示인 {-ne}와 同一한 機能으로 나타나며, {-tül}과도 文法的 意味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자네(저애들, 저애네)’ ‘가네(그애들, 그애네)’, ‘야네(이애들, 이애네)’처럼 方言形 {-ne}는 標準語의 {-tül}, {-ne}로 代置가 可能하며, 또한 ‘야네들’과 같이 複數表示를 二重으로 取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tül}과 {-ne}는 複數를 表示하는 機能이면서도 先行하는 体言은 다르다. 이는 屬格의 {-ne}와 {-üi}가 先行하는 体言을 달리함과 같은 것이다. 複數表示의 {-ne}에 前接하는 体言類는 人名·職名과 一人稱을 除外한 人稱代名詞에 限定되므로써 屬格 {-ne}가 나타내는 排列上의 特徵과 전혀 同一한 것이다. 이와 같은 分布와 함께, 한편으로는 {-ne}가 運用하는 複數·屬格의 두 機能中 標準語나 他方言과 共有하는 機能은 複數를 表示하는 데 있고, 屬格 {-ne}의 用法上에서 나타나는 差異는 {-ne}에 比하여 {-ne}는 省略形이 두드러지게 쓰여지는 事實이다. 卽 ‘아시네 집, 아시의 집, 아시집, 아시네의 집, 아시네 집(아우의 집)’ 등 여러 統辭的 構成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形式은 ‘아시네 집, 아시집’ 뿐이다. 또한 ‘아시네+집’에서 {-ne}는 屬格이나 複數接尾辭에서 어느 機能으로 分析하더라도 語意에 差異가 나타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ne}의 用法·機能·排列의 同一性으로 보아, 하나의 機能 即 複數接尾辭가, ‘아시네의 집, 아시넷 집’과 같은 例에서 {-üi}, {-s}가 省略되므로써, 屬格의 機能을 代行하는 形態로 굳어진 것이라 하겠다.<sup>14)</sup> 特히 一人稱 單數의 人稱代名詞에 {-ne}가 後行할 수 있는 形態的 條件이 이를 더욱 確實히 하여 주고 있다.

2.4.2 屬格 {-üi}는 省略하는 것이 예사이나 慣用하는 語句에서는 {-i}形態로도 實現된다. {-üi}와 {-i}의 分布는 語音에 比較的 安定性을 가진 {-i}屬格形이 優勢하며, 때로는 體言의 母音이 交替되기도 한다.

- ④ 이게 집윗 개가? (이것이 너의 집에서 기르는 개냐?)  
 ⑤ 둘의 곱이민 멧이 되커니? (둘의 갑절이면 몇이냐?)

위 例는 話者에 따라 {-üi}가 {-i}로 實現되며, 省略形은 ‘느네집 개, 둘 곱질’로 나타난다. 이러한 省略은 構成成分에 구애됨이 없이 普遍的으로 {-üi}나 {-i}가 나타나지 아니하는데, 慣用句의 例로서 ‘노리가죽(노루의 가죽), 아시집(아우의 집), 사흘 날녘(사흘의 일거리), 누게 아덜(누구의 아들), 서녀집(西족집)’ 등을 들 수 있겠고, {-üi}가 後行되는 例로서는 ‘이놈의 새끼, 요놈의 조석(이놈의 子息)’ 등과 같은 慣用하는 辱說에서 자주 나타나며, {-üi}插入으로 形成되는 複合語에서는 ‘쉐 괴기, 독 세기’와 같이 母音이 交替한다.

{-üi}屬格의 分布는 前說한 {-ne}와 같은 先行語에 대한 一定한 制約이 없다. 그러므로 運用되는 機能的 意味에 있어서도 ‘所有’ 등에 限定되지 아니하고 同格的이거나, 數量·目標 등 두루 實現되고 있다. 標準語의 {-üi}와 用法上的 差異는 認識되지 아니하나 省略形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發話形式이 많으며, 또한 {-üi}가 {-i}로 實現되므로써 屬格은 形態上에서 並存形이 追加되는 셈이다.

2.4.3 {-s}과 {-h}도 屬格의 機能을 擔當한다. 屬格 {-üi}의 分布는 形態·音韻上으로 制約이 없는 것이지만 이 {-s/h}은 排列하는 데 그 位置가 自由롭지 못하다.

- ⑥ 동녘(洞內) 사람들이 돈 뵈우다. (洞內 사람들이 돈을 모으다.)  
 ⑦ 허는 일 어시 하룻 날력을 버리다. (하는 일 없이 하루의 일을 못하다.)  
 ⑧ 새 각시집이서 놀다. (새 각시 宅에서 놀다.)  
 ⑨ 새시방 칩이강보라. (新郎宅에 가아봐라.)

14) 拙稿, “屬格{-ne}의 研究”, 논문집 제8집, 제주대학, 1976, pp.11-27.

위 例에서와 같이 先行하는 体言은 그 末音이 開音節이어야 하며, 後行하는 体言의 語頭音이 破裂音과 破擦音 /ɬ/인 때는 {-ㅎ}이 屬格의 機能으로 挿入되고, 이 밖의 音일 때는 {-ㅅ}이 쓰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ㅅ}形態 하나로 歸着될 것 같다. 곧 위 例에서 後行하는 体言의 語頭에서 나는 初聲은 ‘싸람, 찹’과 같이 모두 硬音으로 나타나며, 이 硬音은 또한 ‘신랑찹’처럼 有氣音으로 實現되므로써 ‘家’를 나타내는 形態인 ‘집·찹·찹’ 등이 排他的인 分布를 보이고 있다. 特히 硬音의 有氣化는 ‘탈(딸기), 타다(따다, 摘), 트다(뜨다, 浮)’에서 처럼 本島方言에서 일어나는 音韻現象으로 두 形態가 모두 使用되어, ‘집’이 硬音과 有氣音으로 實現되는 雙形을 가진 것과 同一한 것이다.

‘집’이 屬格의 機能을 表示하는 /-ㅅ/이 先行하여 硬音‘찹’으로 바뀌고, /ㅎ/이 先行되어 有氣音으로 바뀌는 音韻의인 環境은 「有聲音과 有聲音」 또는 「有聲音과 無聲音」 사이에 /ㅅ/이나 /ㅎ/이 挿入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環境에서는 어느 形態가 介入되느냐는 ‘마래 찹록·마래 촛록(맷손)’처럼 話者의 隨意的인 發話에 起因하는 것이다.

2.5.1 本島方言에서 處格을 表示하는 格形態는 {-에(-e)}, {-이(-i)}, {-에서(-esə)}, {-트레(-türe)}가 있고 .이 가운데서 {-i}와 {-türe}는 主格과 與格으로도 機能이 表示되는데, 이에 對하여는 該當된 項에서 敘述한 바와 같다. 우선 處格 {-i}부터 例를 들어 用法을 살펴보기로 한다.

- ① 밤이 꿈을 꾸다. (밤에 꿈을 꾸다.)
- ② 가인 집이 남안 일허엌수다. (그애는 집에 남아 일한다.)
- ③ 낮인 일 허꼭 아직한 굴 이그라. (낮에는 일을 하고 아침에는 글을 읽어라.)

위 例의 ‘밤이, 집이, 낮인, 아직한’의 {-i}는 {-e}로 바뀌어 나타날 수도 있으나 唯獨 이들 語形에서는 {-i}로 實現되고 있다. 이처럼 慣用되는 統辭的이거나 形態의인 制約은 찾을 수 없으나, 空間的인 位置를 드러내는 例 ②보다는 時間的인 位置를 드러내는 機能的인 意味로 運用되는 傾向이 두드러진 것이다. 이러한 例로서는 ‘새베기(새벽에), 초어스름이(어스름에), 밤중이(한밤에)’ 등도 添加될 수 있는 것처럼 例外없이 {-i}로 實現되고 있으며, 이들 形態는 {-türe}로 바뀌어 나타나는 일은 없다.

그리고 {-i}格形態가 複合形式에서는 ‘아직일·아침일·아침일(朝), 아직이영·아침이영·아침이영; 아직이도·아침이도·아침이도’ 등과 같이 다른 格에 先行하고 있으며, {-e}의 複合形式인 ‘아침엘, 아침에영, 아침에도’와 共存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i} {-e}가 共存하는 것은 그 起源을 15世紀 國語의 {-에/외}格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며, 殘影이 孤島에

서 維持되는 셈이다.

다음에는 處格 {-에}의 用法을 例示하면,

- ④ 자인 공뵐에 열심허우다. (저애는 공부에 열심합니다.)
- ⑤ 유지낭에 걸름을 주다. (유자나무에 거름을 주다.)
- ⑥ 정지에 사발이 시카? (부엌에 사발이 있은까?)
- ⑦ 훈달에 혼번이나 멩검주. (한 달에 한 번은 다니고 있어요.)

위의 ‘공뵐, 유지낭, 정지, 훈달’에 後接한 {-e}는 다른 處格形 {-i} 또는 {-türe} 등으로 代置할 수 없다. 그러나 {-i}는 {-e}格形으로 바꿀 수 있으므로, {-e}는 여러 處格形 가운데서 位置를 드러내는 機能의 意味가 뚜렷하다 하겠으며, 先行하는 体言의 末音에 拘得없이 後行할 수 있으므로 가장 普遍的으로 쓰여지고 있는 原因이 될 것도 같다.

한편 {-e}는 處格뿐만 아니라 다음의 用例에서처럼 그 機能이 매우 多樣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 ⑧ 난 동카름에 감수다. (나는 東洞內로 갑니다.)
- ⑨ 불에 그시령 잡다. (불로 그슬리어 잡다.)
- ⑩ 술에 궤기에 하영 먹언? (술과 고기를 많이 먹었나?)
- ⑪ 그 사람 노름에 망허여쭈. (그 사람은 노름에 망하였다.)

例 ⑧의 ‘동카름’에 後接한 {-e}는 向格의 表示로서 {-re/rüre/türe} 등과 並用되고 있으며, 例 ⑨의 {-e}는 ‘불에, 불로’와 같이 兩形이 모두 具格으로 表示되었으며, 例 ⑩의 ‘술’에서의 {-e}는 本島方言에서의 {-이영}과 똑 같은 機能이 表示된 共同格으로 實現되는 것이다. 例 ⑪의 ‘노름에’는 ‘노름으로’ ‘노름때문에’ 등으로 나타나는 原因格으로서 後接한 것이다. 이와 같이 處格 {-e}는 向格·具格·共同格·原因格 등 여러 機能으로 運用되고 있어서 標準語의 處格 {-e}와 大差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e}는 {-ㄴ/르/영/알라/쟈장/사} 등에 先行하여 複合格을 形成하며, 또한 接尾辭 {-들(-tül)}, {마썸(massum)} 등이 後接한다. {-tül}은 {-덜(-təl)}로도 나타나는데 副詞에 後接하여 ‘잘들(덜)한다. (잘들 한다.), 재기덜 가라. (빨리들 가야지.), 흑폼덜 주라. (조금 달라.)’와 같이 ‘여럿이’임을 뜻하고, ‘집이들, 흑교에들, 집이덜’과 같이 「体言+處格(이)」의 形式에 後行하여 動作主가 複數狀態임을 뜻하기도 한다.

한편 {-massum}은 ‘집이 마썸?(집에 말입니까?)? 책에마썸? (책에 말입니까?), 남에마

씀?(나무에 말입니까?)'와 같이「体言+處格(에)」에 後行하여 統辭上 叙述語의 구실을 하고, 疑問과 說明이 共通된 構成을 取하면서도 發話의 語末에 加勢되는 節終結形態素에 依하여 區別되고 있다. 그리고 {-massūm}은 文法上 敬語의 形式으로서 곧 聽者에 對한 尊待의 表示로 使用된다. '나도 가카?(나도 갈까?), 나도 가카마씀?(저도 잡니까?)'의 두 發話形式에서 그 差는 前者가 聽者에 對한 下待인데 반하여 後者에서는 尊待인 것으로 이 機能은 {-massūm}에 依하여 遂行되고 있는 것이다.

以上에서 보아 {-e} 格形態가 가지는 方言的 特徵이라 할 것은 一部 語形에서 나타나는 {-i}異形態를 가지고 있으며, 格이나 接尾辭들과 複合形式을 形成하는데 特히 方言의 固有形인 {-massūm}과 結合하여서는 自然스러운 發話形式을 이루고 聽者에게 意味內容이 傳達되는 分布를 들 수 있다. 이는 {-e}格形態에만 結合되는 것이 아니라 '책이마씀?(책 말입니까?), 책을 마씀? 책이영 마씀?(책 말입니까?)'와 같이 主格·對格·共同格 等에서도 一般的으로 分布하나 標準語에서는 이와 같은 複合形式을 찾을 수 없고, 다만 '말씀입니다, 말입니다'가 있을 뿐이다.

2.5.2 處格 {-에서(-esə)}, {-서(-sə)}는 {-이서(-isə)} 形態와 並用한다.

- ⑫ 가이들은 우리집이서 잤저. (그애들은 우리집에서 잤지.)
- ⑬ 어른들이 못(池)이서 몸ᄃ몹수다. (어른들이 못에서 멍갸다.)
- ⑭ 예펜들이 밭이서 일허다. (여자들이 밭에서 일하다.)

위 例에서 '집(家), 못(池), 밭(田)'에 後接하는 {-isə}는 空間的 位置를 드러내는 處格의 表示로서 이를 支配하는 叙述用言은 {-isə}, {-esə}가 同一한 것이다. 그러나 {-esə}가 나타나는 環境에 반드시 {-isə}가 分布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⑮ 학교에서 기영 ᄃ르쳐 주어냐?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더냐?)
- ⑯ 어린것들이 길거리에서 싸우다. (어린애들이 길거리에서 싸우다.)
- ⑰ 구들에서 장난허멍 놀암저. (온돌 방에서 장난하면서 놀고 있지.)

例의 {-esə}를 {-sə}로 바꾸어 놓더라도 文脈的 意味는 同一하다. 그러나 {-esə}가 {-isə}로는 實現되지 않는다. 이것은 處格 {esə}, {-isə}가 그 分布關係에서 制約의 有無로 因한 對立의 露出이라 할 것이나, 그 分布에 對하여 어떠한 規範化는 어려운 것이다. 다음과 같은 例에서 보면

- ⑮ 용머리서 피기 나쁘다. (龍頭岩에서 고기를 낚다.)  
 ⑯ 어느 댁실서 살았제 허여니? (어느 마을에서 산다고 했지?)  
 ⑰ 새동네서 길 다쁘다. (새洞內에서 道路를 補修하다.)

예의 ‘용머리, 댁실, 새동네’에서 {-sə}는 {-isə}로 나타나지 않으나 {-esə}로는 즐겨 發話되고 있다. 그러나 {-sə}와 {-esə}도 同一한 分布가 아님은 ‘책에서’가 ‘책이서’ 또는 ‘책서’로는 아무래도 不自然스러운 것이며 ‘구들에서(방구들에서)’ ‘구들서’도 마찬가지인 데서 알 수 있다. 또한 ‘상방에서(마루)’는 ‘상방이서, 상방서’와 같이 {-esə/isə/sə}形態가 高率 後接된다.

이와 같은 分布의 實態에서 보아 慣用되던 格形態 {-isə}와 {-sə}가 先行하는 體言의 語末音節의 開·閉에 따라 區分되어 쓰여지다가, {-esə}로 介在되어 그 勢力을 弱하게 되자 {-isə}는 限定된 語彙에서만 維持되고 있는 것이라 하겠으며, 한편으로는 {-isə}, {-sə}가 ‘이서, 시(有)’의 活用形 ‘이서, 서’와 形態의 同一하므로 이 推論이 可能하다. 卽 ‘집이 이서?, 집이 서?, 집이 시어?, (집에 있느냐?)’에서의 ‘이서, 서, 시어’와, 主格이 省略된 ‘집이서?, 집서?, 집 시어?(집이 있느냐?)’에서의 ‘이서, 서, 시어’는 同一한 終止形으로서 格形態 {-isə}, {-sə}와 差가 없다. 그리고 發話의 內容은 兩例가 다르나 ‘있다(有)’의 意味에 變動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이서, 서’에 敘述語가 後行하면 ‘집이 서도 아니 허염서, 집이 시어도 아니 허염서, 집서도 아니 허염서, (집에서도 아니 한다, 집에 있어서도 아니 한다)’에서처럼 ‘이서, 서’는 行動의 主体가 存在하는 位置를 드러내는 文法的 意味과, 存在를 意義素로 하는 語彙的 意味가 同一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用法은 {-isə}, {-sə}가 後接할 수 있는 體言에는 ‘바당이서(海), 산이서(山), 밭디서(田)’와 같이 同一하게 實現되므로써 異例의 이 아님을 보임과 아울러 格形態로 바뀌어 쓰이는 例임을 確實케 한다. 그래서 {-isə}, {-sə}格形態가 어떻게 쓰여졌으며, 格으로는 어떻게 形成되었나를 瞥見한 셈이다.

또한 {-esə}, {-isə}, {-sə}는 處格의 機能을 表示하는 것과는 달리 第二次的인 機能으로 交替되는 것은 標準語에서 運用되는 機能과 大差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다음에 例示하면,

- ⑱ 집이서 나완 어딜 가신고? (집에서 나왔는데 어디를 갔을까?)  
 ⑳ 동새백이서부터 지다럼수다. (새벽부터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이서, 동새백이서’의 {-isə}는 움직임이 비로소 떠난 자리를 보이는 處格<sup>15)</sup> 이 後接한

15) 崔鉉培, op. cit., pp. 847-849.



構成으로서, 細分하면 ‘집이서’는 空間的 始發을 드러내는 것이고, ‘동세백이서’는 時間的 始發을 드러내는 格形態로서 이들은 奪格 또는 出格이라 부르기도 한다.<sup>16)</sup>

한편 2.1.6項에서 叙述한 것처럼 ‘우리 마을에서 도와십주’의 {-esə}는 人類와 集團을 드러내는 主格을 表示하고 있어서 處格의 {-esə}와는 달리 運用되고 있는 것이다.

以上에서 記述한 {-esə}, {-sə}가 本島方言에서는 特殊한 機能이나 內容으로 維持되는 것은 아니나 {-isə}形態의 並存에서 特色이 부여되리라 생각한다.

## II

以上에서 叙述한 바를 要約하여 結言으로 삼고자 한다.

1. 濟州道方言에서 主格의 機能을 表示하는 格形態로서는 {-i}, {-ka}가 있고, 이와 함께 主格의 省略形이 예사롭게 쓰여진다.

主格 {-i}는 閉音範의 体言에 後接하고, 開音範에는 {-ka}와 {-i}가 또한 後接한다. {-i}의 後接으로는 人稱代名詞 ‘내’ ‘네’의 例와 함께 方言에서는 ‘조케(조카)’ 등 名詞에서도 例를 들 수 있는 바, 이들 形態는 「体言+主格{-i}」의 縮約인 것이다. 이 縮約의 名詞로는 그 音韻의 環境이 主로 /a/o/u/ə/ 等 末音을 가진 標準語가 該當되는 것으로 보아 主格 {-i}는 閉音節에서만 後接하는 것이 아님이 分明하고, 또한 主格의 省略形과는 文脈上 意味의 對立을 示顯하는 것이다. 即 主格標識의 有·無에 依하여 意味가 달라지는 것이다. 그리고 主格 {-i}나 {-ka}가 複合形式을 形成할 때는 다른 格에 後接하며, 主格의 複合形인 {-이가}도 나타난다. {-이가}는 複合形이나 또는 語彙的인 {이}에 主格 {-ka}가 後接된 構성이냐로 區別된다. 곧 叙述用言으로 形容詞가 後行하는 統辭論的 構成에서는 複合形式이 되고, 行動動詞가 後行할 때는 語彙的인 {이}에 主格이 後接한 것이 된다. 결국 {이}는 語彙의 性格과 文法化가 兩立하는 것이다. 이는 本島方言에서 쓰여지는 {-신디(-에게)}와 ‘신 디(있는 處所)’가 兩立함과 同軌라 하겠다. 이로써 主格 {-i}의 分布上的 特色과 그 形成을 方言의 用例로써 記述한 것이다.

2. 與格의 機能을 表示하는 {-sinti}, {-sintüre}, {-anthi}, {-anthüre}, {-türe} 等 諸 形態는 標準語나 他方言에서는 찾을 수 없고, 本島方言에서만 唯一하게 使用되는 格形態라 하겠다. 特히 {-sinti}는 形容詞 ‘있다(有)’의 語幹에 冠形詞形語尾 {-ㄴ}이 後接하고, 이에

16) 金敏洙, op. cit., p. 36.

處所를 나타내는 形式名詞 ‘디’가 後續되어서 ‘신(有) 디(處所)’를 形成하였고, 이 語彙的 範疇로부터 ‘누게 신디(누구에게)’ ‘성신디(兄에게)’와 같이 {-신디}는 機能範疇의 形式으로 文法化한 것이다.

그리고, {-türe}는 {-ti}와 {re}로 分析된다. {ti}는 本島方言의 指示代名詞 ‘이디, 그디, 저디’의 ‘디(處所)’와 {-sinti}의 {-ti}, 그리고 ‘간 디(간 곳)’의 {ti}가 모두 處所의 뜻을 가진 形式名詞인 것이다. 또한 {-re}는 方向의 指示代名詞 ‘이레, 그레, 저레’의 {-re}의 形態와 뜻이 같다. 따라서 {-türe}는 方向을 意味範疇로 하는 向格을 第一次的인 機能으로 하고, 副次的으로 與格의 機能을 遂行하고 있다. 그러므로 原語人에게는 與格形으로 {-türe}보다는 {-sinti}, {-anthi}가 즐겨 쓰여지며, 이 兩形態는 同一한 叙述用言을 後行시킨다. 또한 이들 形態에 {-re}가 後接된 {-sinthüre}와 {-anthüre}도 叙述用言을 같이 하며, 이들 與格形 모두가 先行하는 体言은 ‘사람’에 制限되고 있다.

3. 對格은 {-을/를}과 {-를}의 短縮形인 {-르}로 表示되며, 原語人의 發話에서는 省略되는 수가 많다. 이러한 省略으로 말미암아 複合形式인 경우 前接하는 格形態가 對格의 機能을 表示하는 듯한 格形이 나타나고, 한편으로는 強調의 뜻으로 因하여 {-ㄴ}格形態와 混用하는 수가 있다. 그리고 叙述用言에 따라 向格 等으로도 實現되는데 이러한 用法과 機能이 標準語와 同一하므로써 方言의 特色은 찾기 힘들다. 다만 短縮形 {-ㄴ}은 開音範 아래서 즐겨 쓰여지고 閉音範 아래서는 省略形이 優先한다.

4. {-ne}, {-üi}, {-i}, {-s}의 諸形態가 屬格의 機能을 表示하며, 省略形이 예사롭게 나타난다. 이들 格形態 가운데서 {-ne}는 標準語에서 複數表示와 方言에서 屬格義示의 두 機能으로 쓰여지는 特色이 있는 形態인 것이다.

屬格 {-ne}形은 先行하는 体言이 ‘사람’에 關한 体言에 限定되며, 機能의 意味는 所有者(또는 保有者)임을 드러낸다. 그리고 {-ne}, ‘아시네 집, 아시네의(이) 집, 아시네 집’ 등의 用例를, 屬格이나 複數接尾辭 가운데서 어느 機能으로 分析하더라도 語意에 差異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原來 하나의 機能 即 複數接尾辭에서 {-의(이)}/{-ㅈ}의 省略形이 屬格의 機能으로 轉移된 것이라 본다.

屬格 {-üi}는 {-i}로도 實現되며, 省略形이 普遍的으로 쓰여지나 慣用句 等에서는 {-üi}가 나타난다.

{-s}와 {-h}도 屬格의 機能을 表示한다. 두 形態의 區分은 先行하는 体言의 末音이 開音節이고, 後行하는 体言의 語頭音이 破聲音이나 破擦音인 環境에서는 {-h}가 屬格의 機能으로 運用되고, 이 밖의 音일 때는 {-s}가 쓰여진다. 그래서 어느 形態가 取해지느냐는 話者의 任意

的인 選擇에 따른다.

5. 處格의 機能은 {-e}, {-i}, {-esə}, {-ütre} 等 格形態로 表示된다.

處格 {-i}는 時間的인 位置를 드러내며, 複合形式에서는 다른 格에 先行한다. {-e}는 處格에서도 가장 一般的으로 쓰여지는 格形態로서 時間과 空間的인 位置를 드러내며, 複數接尾辭 {-들}을 後接시켜서 動作主가 複數임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마씀}이 後接하여서 疑問·反問이나 敬語法의 形式인 尊待의 意味로도 實現된다.

處格 {-esə}, {-isə}, {-sə}는 모두 同一한 機能으로 体言에 後接하며, 그 分布는 語幹末音이 開音範인 때는 {-esə}, {-sə}가 오고, 閉音範에서는 {-esə}, {-isə}가 주로 나타나나 嚴格하지는 아니하다. 그리고 複合形式에서는 {-ka/nūn/to/raD} 等 格形態에 先行한다.

이와 같은 處格의 用法에서 方言의 特色을 찾기는 어려우나 {-esə}形能과 같이 쓰이는 {-isə}形能의 竝存을 들 수 있겠으며, 이 竝存形은 '있다'(有)의 方言形인 '이시, 시'의 終止形 '이서, 시어'에서 機能的 範疇로 轉成된 것임을 斟酌케 하는 데 있다.

## — Summary —

## The Declension of the Jeju Island Dialect

Kang Keun-bo

1. There are {-i}, {-ka} in the case which shows nominative in the dialect of Jeju-Island, and abbreviation is used together.

The nominative {-i} is connected afterwards at substantive of close-syllable, and at open-syllable {-ka} is connected afterwards. In case {-i} is connected afterward at the open-syllable, it is cut down and omitted.

In case nominative {-i}, {ka} are used or in case they are omitted, they are opposed to each other in contextual meaning.

In case nominative {-i}, {-ka} build up compound form, they connect afterward at other case, as the compound form {-i+ka} is also expressed. {-i+ka} is compatible with lexical category and grammatical function.

2. The function of dative is showed with {-sinti}, {-sintüre}, {-anthi}, {-anthüre}, {-türe} etc.

{-sin} of {-sinti} is an inflexional form of adjective {sitta}, {-ti} is analyzed as {ti} which is a formal noun showing place.

{-ti} of {-türe} is also a formal noun showing place, {-re} has the same meaning and form as {re} of demonstrative pronoun {ire, küre, çöre}. Accordingly {-türe} is directive in the first function, dative is the second usage.

3. Accusative is expressed {-ül}, {-rül}, and {-l}, at the close-syllable it is often omitted. {-ül}, {-rül} are the case connecting forward, but they are used by mixture with {-n} etc. which shows the meaning of emphasis. And according to a descriptive inflected word {-ül}, {-rül} are also realized to directive.

4. Genitive is showed {-ne}, {-üi}, {-i}, {-s}, {-h}, and sometimes it is omitted.

{-ne} is used plural-expression in the standard language, it is used the genitive function in dialect.

Substantive preceding {-ne} is limited to substantive on persons in personal pronoun etc. {-ne} is originally considered as conversion from plural suffix to genitive.

{-ss} and {-h} are also showed genitive function.

Classification of the tow forms is as follows:

In case the ending scund of substantive preceding is the open-syllable, the beginning voice of substantive following is plosive or affricate, {-h} is used genitive, in other voice {-s} is used.

5. The function of locative is showed {-e}, {-i}, {-esə}, {-türe} etc.

{-i} indicates the position of time, it precedes other case in the compound form.

{-esə}, {-isə}, {-sə} connected afterward all at substantive as the function of locative, and their scope appears {-esə}, {-sə} at the open-syllable, at the close-syllable {-esə} appears mainly.

{-isə}, {-sə} is found the formation from terminal form {isə, sə} of adjective {itta}